

회장·대표·직원 한자리… 도전과나눔, 조찬포럼 새 지평

‘기업가정신 포럼’ 80회 돌파
법인·개인 등 유료회원 증가
핵심 성공 비결 ‘나눔테이블’

‘통찰력, 차별화, 시의성, 변화, 배움 그리고 나눔.’

친목만을 위한 조찬모임은 거부한다. 가면 반드시 듣는게 있고 꼭 배우는게 있다. 굶주린 배는 물론이고 지혜에 목마른 머리와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서 나오는 조찬 포럼이 있다.

(사)도전과나눔이 협회나 단체의 전 유물로만 여겨졌던 최고경영자(CEO) 조찬 포럼을 7년째 묵묵히 진행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18일 도전과나눔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포럼’은 2018년 7월 첫 행사를 연 이후 현재까지 80회를 훌쩍 넘겼다. 개인·법인등 순수 유료회원도 500명을 넘어서며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었다.

매달 셋째주 수요일 오전 7시를 전후해 조식을 시작으로 여는 조찬 포럼은 매회마다 300여 명이 참석하며 문전성시다. 어떤 때는 준비한 자리와 식사가 모자라 긴급 조달해야 할 때도 많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7년 등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왼쪽)이 지난 9월에 열린 80회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강연자인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도전과나눔

안 포럼을 운영해보니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AI를 중심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업도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보니 변화를 열망하는 CEO나 2세 경영자, 스타트업을 창업한 젊은 대표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업가정신 포럼에는 현재 12명의 기업인이 후계자인 자녀와 함께 참석해 자리를 채우고 있다. 또 무기명으로 2인이 참석할 수 있는 법인회원의

경우 대표가 바쁜 일정 때문에 포럼에 불참해도 일반 직원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참석 직원들은 포럼에서 경영자가 된 듯한 경험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임직원들의 포럼 참여가 조직문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응도 많다”고 말했다.

게다가 KTC, 화이버텍, 삼구아이앤씨, W쇼핑 등 20여개 기업은 적게는 4명부터 많게는 10명까지 임원진이 함께 참여해 조찬포럼을 사내 리더십 회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기업들이 포럼을 ‘교육 복지’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가정신 포럼의 성공 비결 중 핵심은 ‘나눔테이블’이다. 이는 성공한 기업인 선배가 스타트업 등을 창업한 후 배들의 조찬 참가비를 후원하는 전통으로, ‘도전과나눔’ 법인명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첫 테이프는 삼성그룹 비서실장, 삼성물산 회장, 한국마사회장 등을 역임한 현명관 회장이 끊었다. 현 회장은 포럼 초기에 제주 출신 스타트업 8명을 지원했다.

나눔테이블은 이후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 이윤재 전 지누스 회장, 한재권 조인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회장 등 선배 기업인들의 동참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800명이 넘는 후배 기업인들이 함께 했다.

19일 아침 예정된 82회 포럼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의 ‘데이터와 정책으로 분석해 본 2026 부동산 대전망’과 한양대 백서인 교수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중국 기술 제조 굴기의 실체를 해부하다’는 주제로 펼쳐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보

‘기술혁신형 M&A’ 첫 성과

안국약품-디메디코리아 계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민관협력 인수 합병플랫폼(M&A 플랫폼)을 통해 ‘기술혁신형 M&A 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기보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안국약품과 헬스케어분야 중소기업인 디메디코리아가 M&A 플랫폼으로 기술혁신형 M&A 중개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안국약품이 M&A 플랫폼에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다. 기보는 플랫폼에 참여한 인터캐피탈과 트너스와 안국약품을 매칭하고 전문 자문서비스를 연계했다. 그 결과 디메디코리아와 안국약품 간 M&A 계약이 성사됐다.

기보는 이번 성과에 대해 별도의 보증 지원 없이 플랫폼의 중개·자문서비스 제공만으로 성사된 첫 번째 M&A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사진)은 “이번 계약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중견기업의 경영 역량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M&A를 적극 지원해 국내 벤처 회수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첨단 섬유도 전략 자산… 방산분야 등 국산소재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2차 섬유산업위원회’
국산 섬유 소재 활성화 전략 등 논의

국가안보와 산업보호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국방 분야에서 섬유 등 국산 소재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국산 군수품 우선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섬유산업위원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권기 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포함해 이성수 한국제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방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 활성화와 전략, 방위사업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존재하는데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권기 위원장 겸 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앞줄 왼쪽 5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것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윤철 수석연구원은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등의 무기 체계뿐 아니라 방탄복 등 전력 지원 체계의 기술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방 품목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늘리는 것은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투복, 방탄복 등 피

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섬유는 정보통신 기술(ICT) 융합 기술, 쾌적성 부여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성 소재”라며 “이들 기술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면 지속적인 국내 기술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산 소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섬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섬유산업진흥특별법’ 제정 등이 언급됐다.

김권기 위원장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섬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국내 수요 확대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내외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현시점에서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국가 안보 강화와 동시에 섬유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 기업, 3년간 재신청 제한

정부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이란대표가장애인이거나 전체 임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30% 이상(중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며, 강화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비렉스 루나 프레임’ 출시

코웨이가 우아한 디자인에 현대적 고급스러움을 더한 ‘비렉스(BEREX) 루나 프레임’ (사진)을 출시했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루나 프레임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세련된 침실 인테리어를 구현해준다. 곡선미를 살린 헤드보드가 클래식한 감성을 자아내며 헤드보드 테두리는 원단을 등글게 말아 처리한 파이프 장식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높였다.

신제품은 매트리스를 받치는 하부 파운데이션에 스프링이 탑재된 투매트리스 타입이다. 파운데이션이 매트리스에 가해지는 하중과 충격을 한 번 더 흡수함으로써 신체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사이즈는 슈퍼싱글부터 킥, 킹, 라지킹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취향, 가족 구성에 맞게 단독·트윈·연속 등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